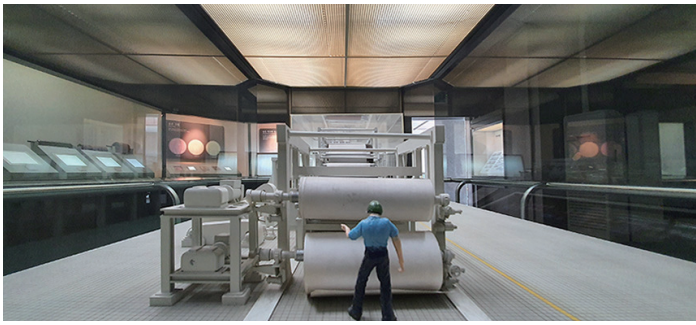
천 년 화폐 역사로 배우는 문화답사기

한국조폐공사 화폐박물관

각 나라의 화폐를 보면 그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다.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한국조폐공사 화폐박물관은 우리나라 화폐 관련 천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화폐의 가치부터 예술적 측면까지 화폐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다.

글 박희수 **사진·자료** 한국조폐공사 화폐박물관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박물관

세계 최초로 사용된 지폐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 997년 중국 북송 시대(현재 사천)에서 발행된 예탁증서 형태였다. 유럽 17세기 초 중세 영국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지폐는 금장이 발행한 예치증서로, 이는 오늘날 은행권의 모체가 된다. 이러한 화폐의 역사와 가치를 오감으로 느끼고 싶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박물관에 가보길 권한다. 한국조폐공사 화폐박물관은 1988년 6월 22일에 개관해 화폐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과 화폐 문화 발전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

화폐박물관은 4개의 상설전시실과 1개의 특별전시실, 체험학습실을 갖추고 있으며, 14만여 점의 소장자료 중 4,000여 점의 전시물이 시대와 종류별로 전시되어 있어 웅장함을 자아낸다. 국내외 화폐 및 학문적·예술적·연혁적 또는 기술적으로 보존과 전시할 가치가 있는 각종 화폐를 기증받아 상설 전시와 특별전시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다.

제일 먼저 관람할 제1전시실은 주화역사관으로 사방을 둘러싼 다양한 주화가 인상적이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어 온 다양한 종류의 주화를 살펴볼 수 있으며, 조선시대의 엽전주조 과정을 재현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과거에 주로 사용한 청동으로 제작한 다양한 엽전부터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한반도 최초 화폐 <건원중보(996)>, 조선시대의 대표적 화폐인 <상평통보 당이전(1651~1742)>, 농기구 모양의 청동 화폐 <포전(시대 미상)>, 조선 개국 497년, 1888년에 주조된 <일원은화 태극휘장(1888)> 등을 만날 수 있다.

화폐를 자세히 보면 각 시대상을 찾아볼 수 있다. 화폐는 그 나라의 얼굴이자 국민 정서의 표상이다. 각 화폐 도안 인물에 담긴 의미를 확인해 보는 것도 박물관을 제대로 즐기는 요소다. 제2전시실은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의 지폐부터 한국은행 설립 후 발행·유통되어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는 대한민국 지폐의 변천사를 두루 관찰할 수 있다.

1. 근대주화 압인기
2. 일원은화 태극휘장

오늘날 익숙한 지폐부터 지폐에 담긴 역사와 문화, 일반적인 종이와 달리 특수기술로 제작되는 은행권 용지의 제작 방법까지 상세히 소개한다. 또한 북한의 지폐부터 희귀지폐, 외국지폐 등 흔히 경험하지 못한 지폐를 전시한다. 디자인과 소재별로 비교하며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제3전시실에서는 위조 방지 홍보관으로 은행권 및 유가증권류의 위변조 사례에 대응하는 한국조폐공사의 기술력을 발견할 수 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프린팅된 대형 오만 원권은 화폐박물관의 하이라이트로, '우리 돈이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질문을 통해 지폐의 각 구성요소를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요소를 지닌다. 위조 방지 요소 체험을 통해서는 위조지폐를 감식하는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제4전시실은 한국조폐공사관으로 조폐공사의 역사, 우리나라 우정 및 메달의 다양한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우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크리스마스실(Christmas seal), 수표, 어음, 증·채권, 신분증, 여권, 각종 기념 메달과 스포츠 대회의 시상 메달, 대통령에게 수여되는 무궁화대훈장 등 12종의 훈장과 포장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세계 각국의 지폐로 보는 시대의 흐름

지폐 속에는 각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빛과 그림자가 존재한다. 그중 제2전시실에 마련된 지폐역사관은 일제강점기 일본제일은행권부터 조선은행권,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의 조선은행권의 행보를 비롯해 구한국은행권,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국은행권까지 우리나라의 뼈아픈 역사가 은행권에 담겨 있다. 이처럼 지폐역사관은 시대 흐름에 따른 화폐 체제를 소개하면서 체계적인 수집과 보존으로 연구자료, 교육 문화에도 공헌하고 있다.

제4전시실에서 볼 수 있는 <제24회 서울올림픽 입상 금메달(1988)>, <한국시리즈 금메달(1997)>, <정부수립 50주년 기념 메달(1998)> 등은 우리나라 역사를 기념할 수 있는 메달로써, 문화 발전이 조폐 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할 수 있다.

세계 70여 개국의 형형색색 은행권 도안과 색상, 크기를 비교하며 여러 세계 화폐를 만나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다양한 나라의 지폐를 보는 것만으로도 세계 여행을 하는듯한 경험이 될 수 있다. 화폐에서 더 나아가 문화까지 파고들어 서로 다른 예술적 감흥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화폐박물관은 특별전시실 무료 대관을 비롯해 화폐경제교육, 진로·직업특강 등 화폐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벚꽃이 피는 계절에는 페스티벌을 추진해 지역민을 위한 문화명소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가을의 시작을 직감하는 9월, 시원하게 탁 트인 전경을 자랑하는 한국조폐공사 화폐박물관을 방문해 보자. 일상 가까이에서 친근하게 느껴졌던 화폐가 더 특별하게 느껴질 것이다. 또한 화폐박물관 근처에는 '국립중앙과학관', '지질박물관', '대전시민천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과학을 즐길만한 공간이 즐비하다. 함께 방문해 첨단과학도시 대전을 더욱 깊숙이 경험해 보는 것도 좋겠다.

한국조폐공사 화폐박물관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 10:00~17: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 정부 지정 임시공휴일 휴무
- 042)870-1200

1. 조선은행 백원 권
2. 북한 외화와 바꾼 돈표 십원